

아재부터 아이돌까지...가요계 '10월 전쟁'

박효신, 샤이니, 에일리 등이 신곡 발표 이어
젝스키스, 방탄소년단, 김건모 등도 새 음반
발라드·힙합·댄스 등 다양한 장르 대결 기대



지난달부터 한동근, 임창정, 박효신 등이 각종 음원 차트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발라드 음악의 힘을 발휘해 왔다. 10월 들어서는 엠씨더맥스, 신용재, 다비치, 나윤권 등이 발라드 음악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내로라하는 발라드 강자들이어서 그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이돌 스타부터 '아재' 가수까지 다양한 가수들이 10월 새 음반을 내고 활동에 나선다. 발라드, 힙합, 일렉트로 댄스, R&B 등 장르도 다채롭다. 특히 신곡을 낼 때마다 차트를 강타하는 '음원강자'들이 대부분이어서, 10월 가요계는 불꽃 튀는 마지막 격전으로 뜨거울 전망이다. 그야말로 '10월 대축제'다.

이미 박효신, 샤이니, 에일리 등이 신곡을 낸 가운데 7일부터 엠씨더맥스, 다비치, 신용재, 방탄소년단(사진), 세븐, 크러쉬, 엑소의 3인조 유닛, 씨스타 효린, 트와이스, 김건모 등이 잇따라 새 음반을 낸다. 이밖에도 어느 정도 흥행을 보장받는 '강자'들이 있다.

이들의 10월 총공세는 몇 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을 만들어낸다. 임창정과 박효신이 이끈 '발라드 강세'가 10월에도 계속될지와 함께, '대세 남녀'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가 보여줄 폭발력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기를 누리고 있다. 데뷔 1주년에 완전한 정상급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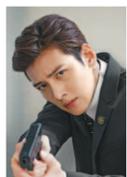
이어 젝스키스와 세븐, 김건모 등 과거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젝스키스는 16년 만에 재결성해 콘서트를 벌인 데 이어 7일 신곡 '세 단어'를 내놓았다. 세븐은 군 제대 후 첫 작품 '아이 엠 세븐'을 14일 발표한다. 타이틀곡 '기브 잇 투 미'는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브루노 마스의 곡을 제작한 프로듀싱 팀 스테레오 타입스와 세븐이 공동 작업해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아재 가수' 김건모도 5년 만의 새 앨범을 10월 중 내놓는다.

엑소의 첫 유닛 도전, 씨스타 효린의 3년 만의 솔로 음반도 10월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요소다. 14일 새 음반을 내놓는 크러쉬는 또 다시 힙합팬들을 응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과 특정 장르가 가요계를 독식하는 '솔리드 상'을 보여준 가요계이지만 10월만큼은 발라드, 힙합,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빅스타들이 동시 출격해 풍성한 축제가 펼쳐져 팬들을 설레게 한다.

김현경 기자 gyummy@donga.com

아외무대 2000석...치킨·콜라 먹으며 놀자! 지창욱 '통 큰 팬미팅'



그동안 펼쳐왔던 팬미팅이 아니다. 연기자 지창욱(사진)이 자신만의 화끈한 방법으로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한다. 현재 방송 중인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더 케이투'에서 화려한 액션연기 매료 화제를 모으고 있는 지창욱이 드라마 못지않은 블록버스터급 팬미팅 무대를 연다. 지창욱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상암동 난지마당에서 '지창욱 3D'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맛있게 먹고, 역동적으로 놀면서 다함께 기쁨을 나누자'라는 뜻으로 '다이내믹(Dynamic)', '달리셔스(Delicious)', '달라이트(Delight)' 등 세 단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아외라는 장점을 이용해 2000석의 대규모 좌장 3시간 넘게 진행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지창욱은 팬들과 함께 치킨과 콜라(성인에 한해 맥주 제공)를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또 아외인만큼 체육대회를 연상케 할 정도로 뛰면서 몸을 굴리겠다는 각오다. 할리우드 영화 '본' 시리즈의 주인공 제이슨 본이 떠오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더 케이투' 속 그의 액션연기와 같은 날렵한 몸놀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팬들과 '분방사수' 이벤트도 벌인다.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며 틈틈이 촬영에 얹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줄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6일 "팬들의 요청이 잇따라 드라마 방송 도중 팬미팅을 열게 됐다"며 "이날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창욱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해외 팬들의 아쉬움은 다른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6일 '춘몽'을 개막작으로 다양한 영화를 소개한다. '춘몽'의 양익준, 한예리, 이주영, 장률 감독(왼쪽부터)이 기자회견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태풍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설렘 대신 무거움

개막작 '춘몽' 양익준 "자율성 보장 아쉬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지만 지금 마음은 무겁고 어렵다."(양익준 감독) 설렘과 기대에 찬 축제의 시작이 아니다. 극절 끝에 6일 막을 올린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기자회견에서 나온 개막작 '춘몽'의 주연배우의 말이 영화제가 처한 '현재'를 그대로 드러냈다.

장률 감독이 연출한 '춘몽'의 주연공인 양익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화감독 대다수가 속한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을 거부한 상태다. 열흘간의 축제를 시작한 부산

국제영화제 앞에 놓인 문제가 간단치 않다. 개막 하루 전날 부산에 불어 닥친 태풍 차바의 여파로 영화제 야외행사장 비프빌리지가 초토화됐기 때문이다.

개막식 레드카펫 역시 아쉬움을 남긴지 마찬가지다. '부산행'과 '타일' 등 올해 최고 흥행작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관객의 사랑을 받은 스타의 참여도 저조했다. 배우 설경구와 한효주가 개막식을 진행했고 임권택, 정지영, 허진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안성기, 조민수, 김의성, 박소담 등이 레드카펫을 밟았다.

주말 또 다시 비가 예고된 가운데 영화제는 7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병헌, 손예진, 유여정이 관객과의 대화에 나서고 영화 '아수라'의 주역인 정우성과 주지훈, 박도원이 영화제를 찾는다.

해운대(부산) | 이혜리 기자 goll1024@donga.com

CHANNEL 오늘의 채널A 개밥 주는 남자 7일 밤 11시

머리 자른 동호 알아보지 못하는 애견

동호가 다시 아이돌그룹 유گی스 멤버로 변신한다.

동호는 눈을 가리는 긴 머리카락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잘라 줄 것을 부탁한다. 거실 한 가운데 의자를 가져다 신문지를 뒤집어 쓰고 준비한다. 그러나 아내는 "이상하다. 쥐 파먹은 것 같다"며 미용실에 다녀올 것을 권유한다.



호의 얼굴이 드러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끔한 모습이 된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애견은 한동안 동호를 알아보지 못해 웃음을 자아낸다.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밤 11시 직일 때마다 머리카락에 가려졌던 동

날씨와 생활 10월 7일 금요일 (음력 9월 7일)
서울 20/30 16 25 17 24
대전 10/80 15 24 16 24
광주 10/80 15 24 13 23
제주 30/70 19 24 15 25
강릉 30/20 15 21
울릉도 20/30 15 19
대구 20/80 16 23
부산 20/60 18 23
지역 기상 현황 (오전 09시)
날씨 최저 최고기온°C
해돋이 06:33 / 해질 18:06 달출 11:48 / 달질 22:10

Table with 3 columns: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먼지. Lists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locations like 북한산, 설악산, 개령산, 속리산, 소백산, 팔공산,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해운대, 제주도, 인천송도, 제주도, 경포대, 속초, 안면도 꽃지, 변산반도, 거문도, 철포,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8일 (토) 서울경기 17/23 영동 18/24 충청 17/22 호남 17/23 영남 19/23 제주 22/24
9일 (일) 서울경기 11/17 영동 12/18 충청 10/18 호남 12/19 영남 16/21 제주 17/21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301호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9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TV 프로그램 7일 (금)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채널A, KBS1, KBS2, MBC, SBS, 영화·드라마, 오락·음악, 다큐·교양, 스포츠·레저.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가맹문의 1899-3117
쇼킹 Hot 스테이크버거
검없이 먹지 마라!
한 입 베어무는 순간
폭발하듯 터지는
황홀한 맛의 향연~
두툽한 스테이크 패티와
화끈하게 매운 소스가 만났다~